



부속문서 3

## 중간보고서

---

###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몽골의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협력으로 추진된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의 시작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제는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주요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가는 단계이다.

본 사업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A.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된 713시간의 자기 테이프 자료들의 복원 및 디지털화
- B.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포털 웹사이트 구축(몽골어/영어)
- C. 한국에서 전문가 회의 개최
- D. CD 세트 제작(100세트)
- E. 교육, 문화 기관 및 학교 등 관련 기관에 CD 세트 배포
- F. 디지털화된 자료를 평가하고 세부 정보들을 취합하기 위한 모니터링 그룹 선정
- G. 보고(중간보고/결과보고)

본 사업의 틀 속에서 아래의 활동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 A. 본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몽골의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언어문학연구소는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 B. 한국과 몽골 양국은 2011년 10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C.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가 2011년 10월 17일에서 2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의 우르트나산 이사장, 알탄투야, 몽골 국립

라디오방송국의 케를렌투울, 언어문학연구소의 간바타르 등을 포함한 몽골측 전문가들과 더불어, 한국측 전문가인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본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송민선 실장, 국가기록원의 이지영 공업연구사, 영화진흥위원회의 김기탁, 주현승, 문화방송의 최상일 프로듀서, 국립민속박물관의 김종태 학예연구관 등을 비롯한 문화 관련 기관과 기술자들이 참여하였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디지털화 현황’,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의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몽골 국립 라디오방송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활용’, ‘몽골 언어문학연구소 소장 아날로그 자료 현황 및 향후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계획’, ‘민요 아카이브의 기능과 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시청각 기록물 보존 및 디지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등의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양측은 한국의 무형유산 정보와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활동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하였다.

전문가 회의 기간 동안 몽골측 참가자들은 MBC의 통합 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를 듣고 MBC 라디오국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영상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등을 견학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무형유산 영상자료들의 보존 기술과 일반 대중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무형유산 자료의 아카이브화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학습을 하였다.

몽골의 언어문학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자기 테이프의 복구와 디지털화를 위한 운영지침은 투무르토구 소장의 승인 하에 마련되었다. 사업의 실행을 위한 실무팀과 전문가팀의 구성 또한 운영지침에 포함되었다. 업무 분담과 조건 등 세부적인 사업 계획 역시 실행 기관인 언어문학연구소에 의해 마련되었다.

전문가팀은 2011년 11월에 수행된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교육부와 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유산센터, 언어문학연구소 및 국립 라디오방송국 등 각 관련 기관에 소속된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팀의 역할은 행정적 절차에 관한 자문 및 자료 복원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 유산의 지정과 분류, 보관상태와 디지털화 등의 활동 모니터링 등이다

사업 실행팀은 12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본 사업의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과 정책 등을 마련하고 소개하였다. 2011년 12월, 사업 실행팀 구성원들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본 사업의 예산으로 미화 20,000 달러와 16,918 달러가 2011년 12월 2일과 21일에 각각 송금되었다. 동시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 기타 재료들이 언어문학연구소에 마

련되었다. 주요 장비는 컴퓨터, UPS, 믹싱콘솔, 사운드 카드, 헤드폰 등이다.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ZRK)들을 재생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 현재는 3 개의 대여한 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팀이 계속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사업 실행팀은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에서 10 일 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기 테이프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 “CUBASE”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업 방법 및 기술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3 일 간의 현장 실습을 통해 언어문학연구소의 장비들을 실제로 설치하였다.

현재 약 100 시간의 오디오 자료들이 복원되었다. 총 10 장으로 구성된 오디오 CD 세트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오디오 자료 중에서 무형문화유산 자료들이 선별되어 CD 에 포함된다. CD 세트의 제작은 모든 오디오 자료의 복구가 완료되는 3 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전문가팀이 선정되었다. 웹사이트 구축팀과 사업실행팀은 2011 년 12 월 말까지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웹사이트 구축팀에는 전문 웹디자이너들과 무형유산 전문가, 연구자 및 사진작가들이 포함된다. 웹사이트에 포함될 내용은 팀원들끼리 의논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전문 웹디자이너들은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맡았다. 웹사이트에 수록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몽골의 무형유산 및 그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지침, 추천, 참고자료, 기타 참고문헌 및 관련 문서 ;
- B. 무형문화유산 목록, 분류체계, 항목, 간략한 소개와 사진 ;
- C. 무형유산 보유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사진 ;
- D.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에 수록된 음성 자료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
- E. 몽골의 성지 등록, 간단한 소개 및 사진 ;
- F. 무형유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자료 및 참고문헌

웹사이트의 구축은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된 노후화된 테이프들의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2012 년 3 월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의 출범식은 2012 년 1 월 5 일, 언어문학연구소의 컨퍼런스 홀에서 거행되었다. 출범식에는 교육문화과학부의 무형유산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

술부의 자갈사이간, 문군톨, 사업총괄자인 우르트나산, 학자이자 언어문학연구소의 소장인 투무르고구,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부서의 운텐바트, 무형유산 전문가, 프로젝트 팀원들, 연구소의 행정직원들 및 각종 관련 단체 대표 50 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업 출범식에는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부의 문군톨과 사업 총괄자인 우르트나산, 언어문학연구소 소장인 투무르고구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사업의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가치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별히 본 사업을 업무적,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센터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였다. 발표자들은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그들의 강한 의지를 표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하였다. 사업 출범식에 참석한 귀빈들은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의 복구 작업에 대한 현장 활동을 소개받았고 사업실행팀에게 본 사업의 귀중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였다. 참가자들과 발표자들은 본 사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언과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다.